

급성 감염 후 사구체신염이 동반된 성인 Henoch-Schönlein 자반증 1예

을지대학교병원 내과, 소아과*, 해부병리과†

박순현 · 김민욱 · 김현정 · 강주형* · 주종은† · 김용일† · 이영숙

서론: 사구체 기저질환에 이차적으로 발생하는 사구체 신염은 매우 드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소아의 경우에서 단지 몇 증례 (Abstract by Cho et al, 2005)만이 보고되었다. 저자 등은 혈변 및 복통, 피부발진과 관절통을 주소로 내원하여 임상적으로 Henoch-Schönlein 자반증으로 진단된 환자에서 급속 진행성 사구체 신염의 임상소견을 보이며 저보체혈증이 동반되었던 1예를 경험하였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증례: 21세 남자 환자가 내원 8일 전 죽근 관절에 부종과 압통을 동반한 피부 발진을 주소로 내원하였다. 내원 6일 전 대퇴부에 부종과 압통이 있어 정형외과, 피부과 개인의원 방문하여 진료 받았으나 특별한 치료는 받지 않았고 이후 피부발진이 하지전체로 점점 퍼져나가면서 내원 3일 전부터는 4회 정도의 혈변을 동반한 수양성 설사가 동반되었고 내원 하루 전 복통과 발열, 오한, 주관절의 부종과 압통이 심해져 타병원을 경유하여 본원 응급실로 전원되었다. 내원시 혈압은 152/70 mmHg, 체온은 37.0℃였고, 검사실 소견 상 백혈구 15,470/ μ L, 혈색소 14.6 g/dL, 혈소판 231,000/ μ L (중성구 77.3%, 호산구 1.3%), 혈청요소질소 14 mg/dL, 크레아티닌 0.9 mg/dL, ASO 107 IU/ml (0-166)였고, 소변 검사는 요잠혈 2+, 요단백 4+, 요침사검사는 적혈구 5-9/HPF, 백혈구 5-9/HPF였다. 입원 후 위내시경, 대장 내시경과 복부 CT 촬영 검사에서 십이지장염과 장염의 소견이 관찰되었다. 본원 소화기내과로 입원 후 3주간 감염성 장염에 준해 보조적으로 치료하던 중 시행한 24시간 요단백량이 1,344.6 mg/day로 증가되어 있어 신장내과로 전과되었다. 당시 면역혈청 검사 결과 혈중 IgG/IgA/IgM은 414.88/167.73/158.92 mg/dL, 혈청요소질소/크레아티닌은 14/1.0 mg/dL, 혈중 C3/C4 58.75/8.28 mg/dL, CH50 7.0 U/mL로 저보체혈증의 소견을 보이고 있었다. 신생검상 메산지움의 증식과 메산지움 및 상피하 조직에 연속적인 전자 고밀도 침착을 보였고 낙타혹 (hump)이 관찰되었다. 내원 이후 환자 혈청 크레아티닌 농도가 점차 증가하던 중 Cr 2.1 mg/dL로 급속진행성 신기능 저하소견이 관찰되어 스테로이드 충격 요법을 시행하였으며, 이후 스테로이드 및 azathioprine 병합치료 중이며 현재 신기능은 1.1 mg/dL로 호전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발병이후 6주째 시행한 보체 검사 결과는 정상 범위를 나타내었다.

결론: 저자들은 임상적으로 Henoch-Schönlein 자반증으로 진단된 성인 환자에서 감염 후 사구체신염의 임상 소견이 동반되었던 1예를 경험하였기에 보고하는 바이다.